



베트남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베트남 이슈 업데이트 : 11년 만의 방한

베트남 당 서기장, 11년 만에 방한

도 램(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8월 10~13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당 서기장의 방한이다. 양국은 2024년 약 80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으며, 총 10개의 MOU를 체결했다.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원전 및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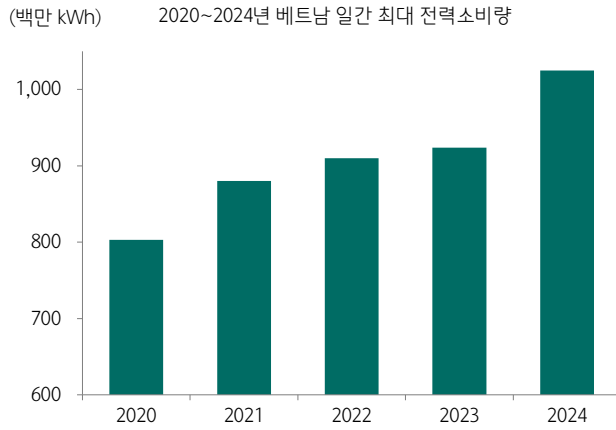
금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원전과 철도다. 우선,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전력 수요가 매년 약 12% 증가하며 산업생산 및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과거 전력 사용 감축 권고 사례에서 확인되듯 전력난은 제조업 생산 차질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의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원전 재도입을 결정하고 ‘2030년 원자력 발전소 완공 및 가동’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 확대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생산 역량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 인프라는 베트남이 아세안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와 항만 중심의 물류만으로는 급증하는 내륙 및 국경 간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철도 물류 운송 비중은 노선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여전히 0.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고속철도를 비롯한 10여 개 신규 노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철도 건설의 완성도와 추진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철도 인프라의 현대화는 베트남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전략적 위상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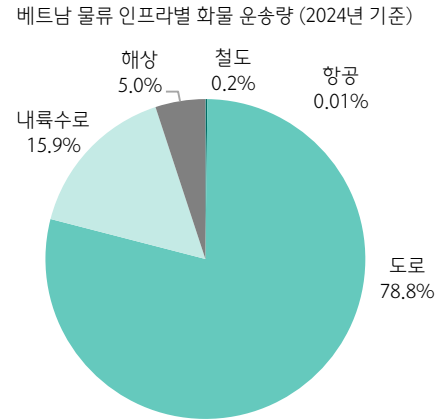
이번 회담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베트남이 직면한 전력난과 물류 인프라 낙후 등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원전과 철도 협력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력 공급 안정성과 물류 효율성 개선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표 1. 베트남 일간 최대 전력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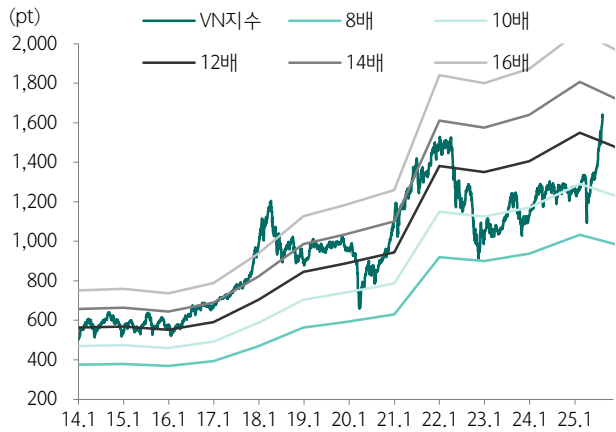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베트남 물류 인프라별 화물 운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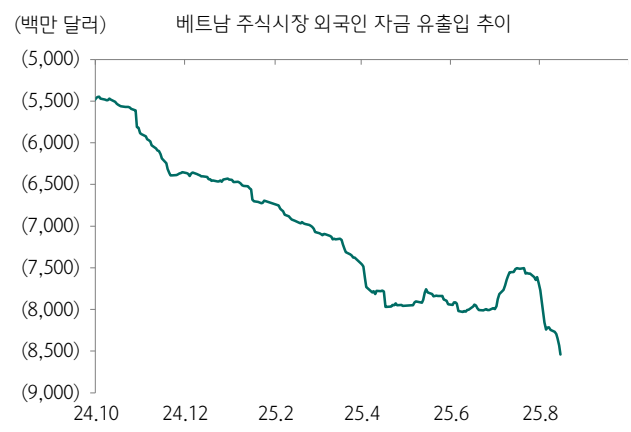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베트남 VN 지수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베트남 중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